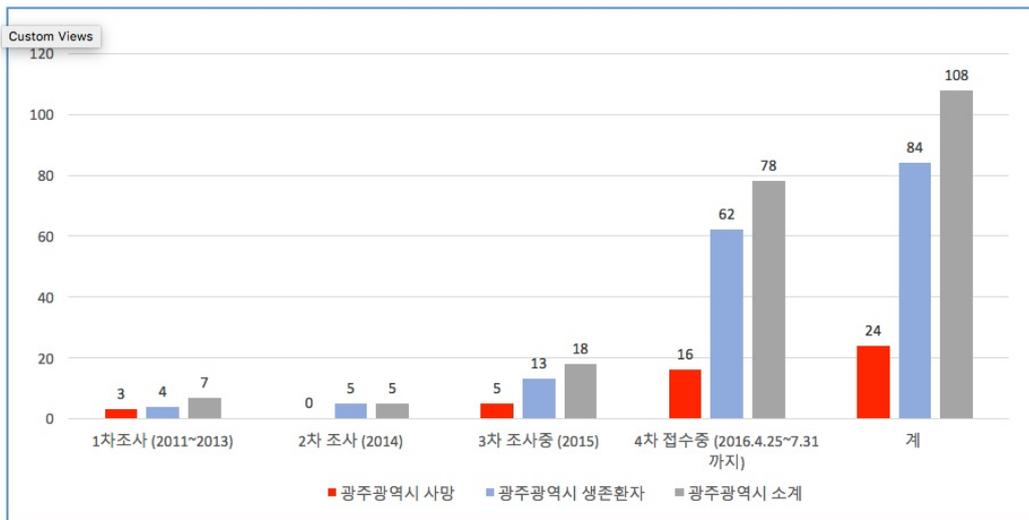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0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24 명, 생존환자 84 명
올해만 78 명 늘어 이중 사망 16 명**

2016 년 7 월 31 일까지의 조사 및 접수현황



<그림, 2011 년부터 2016 년 7 월까지의 광주광역시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신고접수 현황, 자료출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시민센터 / 광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www.eco-health.org

목차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1) 피해신고현황
- 2) 피해조사현황
- 3) 올해 들어 피해신고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 4) 판정결과와 문제점
- 5) 국회 국정조사

2 가습기살균제 피해 광주광역시 현황

- 1) 시 전체 현황,
- 2) 광주 구별 현황

3 어떻게 해야 하나

- 1) 피해자 추산
- 2) 피해자 찾기
- 3) 옥시불매운동
- 4) 자치단체의 역할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표, 가습기살균제 정부 조사 및 신고현황 2016년 8월31일까지의 접수분>

구분	계	사망자		생존환자	담당 정부기관
		사망 (사망률)	판정당시 사망 판정후 추가사망		
1차 조사완료 (‘11.9~’13.12)	361	106 (29.4%)	104 2	25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차 조사완료 (‘14.1~’14.12)	169	40 (23.7%)	36 4	129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차 조사중 (‘15.1~’15.12)	752	80 (10.6%)		67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차 접수중 (‘16.4.25~’16.8.31)	3,204	693 (21.6%)		2,511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	4,486	919 (20.5%)		3,567	

* 1차-2차 조사자 중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사망자 3명은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에 포함했음.

1) 피해신고현황;

- a) 정부(환경부)는 2016 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 월 25 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기로 했다.
- b)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8 월 31 일까지 접수된 4 차 피해접수는 3,204 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693 명이다.
- c) 2011 년부터 2016 년 8 월말까지의 전체 피해신고자는 4,486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919 명 생존환자는 3,567 명이다. 피해신고자의 20.5%가 사망으로 신고자 10 명중 2 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가 달력

(주간경향)과 환경보안센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4차례 걸쳐 접수된 피해 사망자 목록을 정리했다. 신청자 가운데 총 875명이 사망했다.

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비고	
1996														1	
1997	김**04월/남				김**08월/남							김**09월/남		2	
1999	노**02월/남						박**7개월/남					이**03월/남		2	김**03월/남
2000			장**4개월/남												
2001	김**09월/남	김**02월/남	김**03월/남				김**10개월/남		이**03월/남					3	김**03월/남
2002	김**11개월/남	조**07월/남													
2003	이**04월/남	정**4월/남	김**04월/남												
2004	서**02월/남	정**07월/남	조**4월/남	조**3월/남	정**03월/남										
2005	고**08월/남	김**09월/남	김**03월/남	김**08월/남	김**02월/남										
2006	이**06월/남	김**07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2007	김**03월/남	김**02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2008	최**03월/남	정**03월/남	김**02월/남	김**01월/남	이**01월/남										
2009	김**03월/남	김**02월/남	김**02월/남	김**02월/남	김**02월/남										
2010	신**06월/남	김**02월/남	이**03월/남	조**04월/남	이**03월/남										
2011	김**03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김**03월/남										
2012	김**01월/남	김**07월/남	이**04월/남	조**03월/남	이**08월/남										
2013	김**01월/남	김**07월/남	김**04월/남	조**03월/남	김**02월/남										
2014	이**03월/남	김**09월/남	김**01월/남	김**07월/남	김**02월/남										
2015	이**08월/남	김**07월/남	김**01월/남	김**01월/남	김**01월/남										
2016	김**04월/남	김**09월/남	김**09월/남	김**04월/남	김**04월/남										

(자료제공: 다들어만주당 신청된 사망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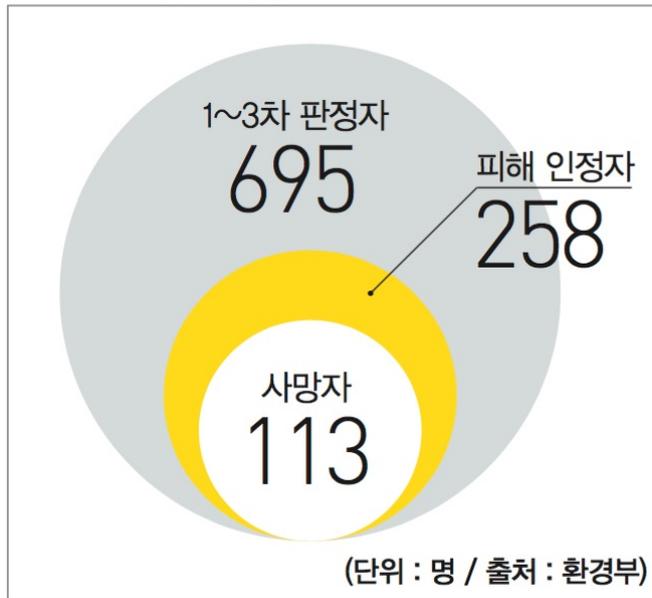
2) 피해조사현황;

- a) 2015 년 4 월까지 진행된 정부의 1-2 차 조사에서 사망자 146¹명을 포함한 530 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2016 년 8 월에 2015 년도에 접수된 3 차 신고자의 일부인 165 명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1~3 차에 걸쳐 695 명에 대한 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 b) 3 차신고자의 나머지 587 명에 대한 조사는 올해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신고된 4 차 접수분은 내년에 조사가 진행된다.

3) 올해 들어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이유;

- a) 1 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옥시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동안의 증거조작 등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가슴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 월 이후 엄청난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슴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 인정 첩첩산중



4) 판정결과와 문제점;

- a) 정부는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 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도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¹ 1-2 차 조사발표 이후 6 명이 추가로 사망해 146 명이 되었다. 정부는 판정등급 4 단계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인 건강모니터링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도 파악되지 않는다.

판정기준이 보완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영향 여부가 다시 조사하게 된다.

- b) 정부는 1-4 판정단계중 일부인 1-2 단계만을 피해지원대상으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695 명중 37%인 258 명만이 1-2 단계에 해당돼 병원비 또는 장례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258 명의 절반가량인 44% 113 명은 사망사례다. 정부의 지원비는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권소송을 통해 국고로 환수된다. 즉 제조판매사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조사도 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일부 피해를 지원하지만 지원비는 제조판매사들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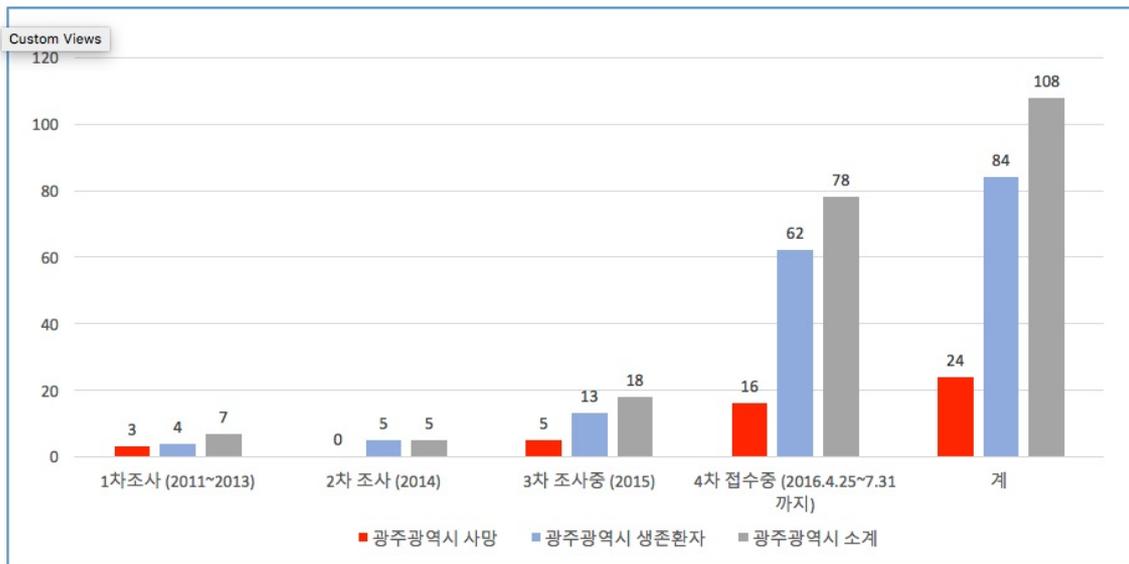
- 5) 국회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7 월초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각 9 명씩 18 명의 위원들이 예비조사,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정조사는 10 월 4 일까지 진행된다.

2. 가슴기살균제 피해 광주광역시 현황

- 1) 시 전체 현황; 2016 년 7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4 명, 생존환자는 84 명이다. 사망률은 2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 20%보다 약간 높다.

지역	분류	1차조사 (2011~2013)	2차 조사 (2014)	3차 조사중 (2015)	4차 접수중 (2016.4.25~7.31 까지)	계
광주광역시	사망	3	0	5	16	24
	생존환자	4	5	13	62	84
	소계	7	5	18	78	108

<표, 광주지역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그림, 광주지역의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접수 현황>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는 사망 3, 생존 9 등 12 명이였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5, 생존환자 13 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4 차 접수는 7 월말까지 사망 16 명, 생존 62 명 등 모두 78 명이다.

지난 5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72.2%가 올해 집중되었다. 서울과 광주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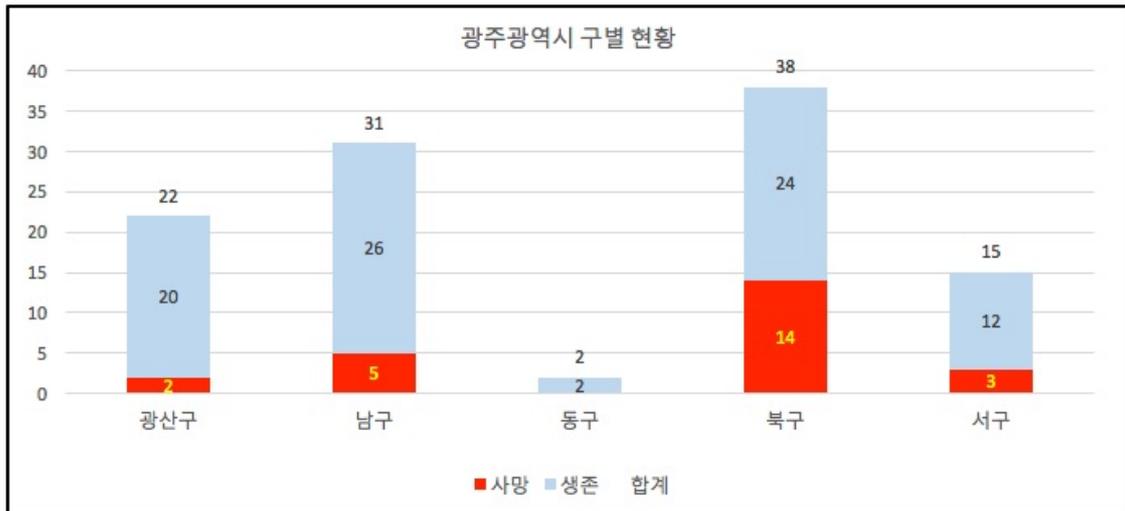
- 2) 광주광역시의 시군구별 피해현황

광주지역의 시군구별 피해접수현황은 5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주하는 108 명의 피해사례이고 이중 사망은 24 명이다.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을 피해신고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북구가 38 명(사망 14 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 31 명(사망 5 명), 광산구 22 명(사망 2), 서구 15 명(사망 3), 동구 2 명의 순이다.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한다.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계
사망	2	5		14	3	24
생존	20	26	2	24	12	84
합계	22	31	2	38	1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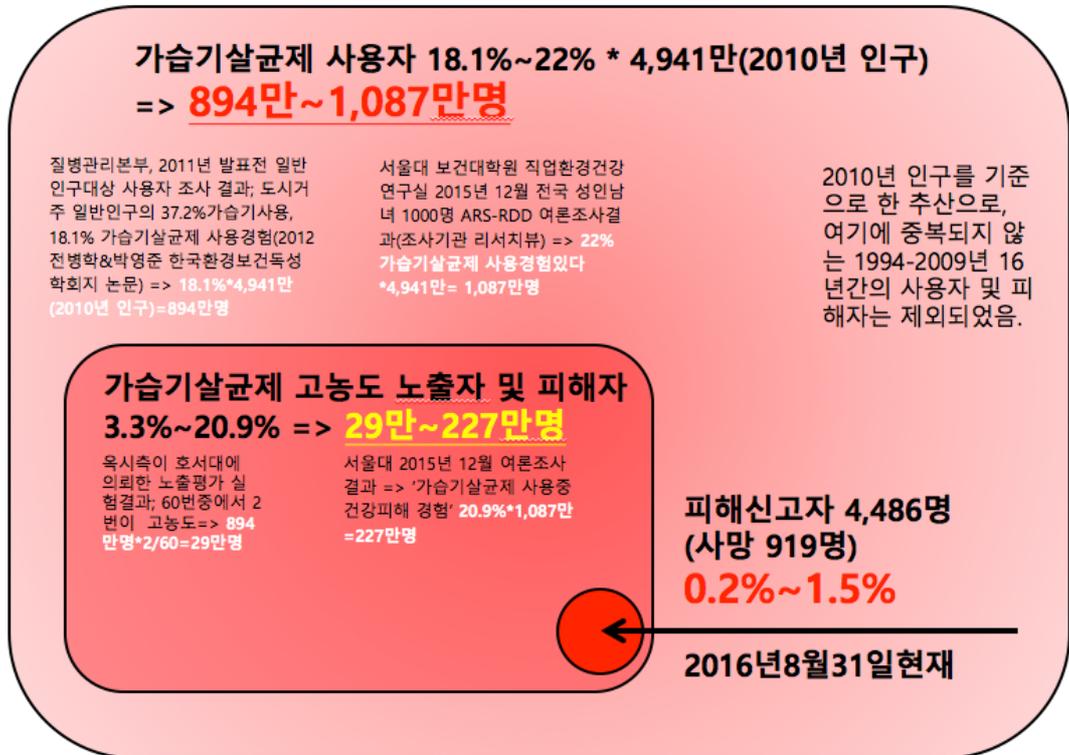
<표, 광주지역의 각 기초 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그림, 광주지역의 시군구 각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3 어떻게 해야 하나?

- 1) 피해자 추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1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만~227 만명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병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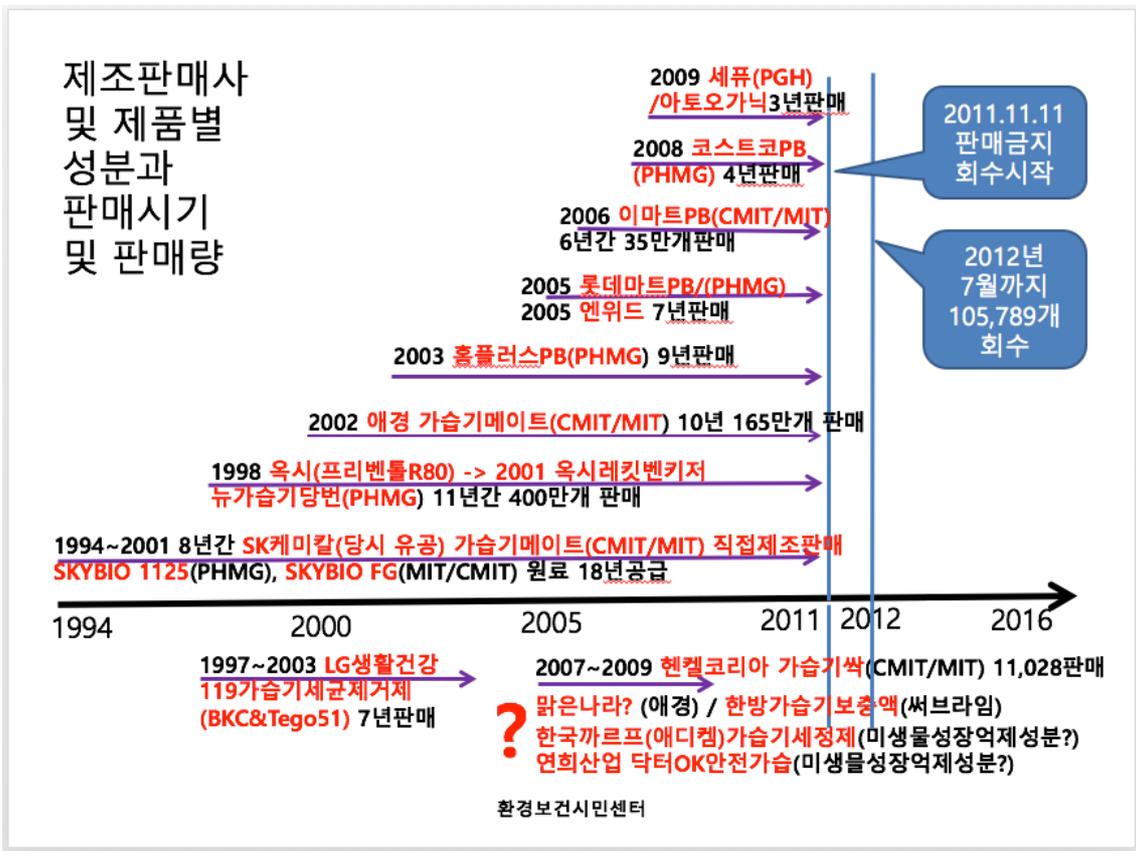
<그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 피해자 추산,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

2) 피해자 찾기;

- ①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② 5 년전~22 년전의 가슴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가슴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 년이었고 이후 2-3 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 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 년전, 멀게는 22 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 ④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나도 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하세요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런데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1997.2.5
결혼

2001.2.5
첫태출산

2005.10.5
둘째출산

2007/2008

2011년
정형외과실용

2016.6 현재

이차 주소

가습기(A사)
롯데백화점 2~5동
인근 00라프터 천공 구입
(영수증 지)

이차 주소

가습기(B사)
롯데마트 PB 4동 구입
(나라사랑 2개), 카드 구입,
천공상점과 동일,
2005년 10월 출산 준비차

이차 주소

첫째 병원기록
폐렴, 천식으로 인해 병원 2회 내원,
대학병원 2회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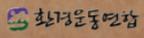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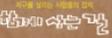
첫째 병원기록
2006년 3월 5일 호흡관으로 쓰러짐
19급급치타고 00병원 응급실 입원
2006년 4월 5일 사망

결과
2006년 비염 증상 시작
비염 증상 심해짐
현재도 증상

지급도 거둬와다 천식 재발
비염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전화 **02-741-2700**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환경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relidf@keiti.re.kr

가습기살균제 16개 제품, 판매기간/성분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p>유공 가습기메이트 판매기간 1994~2001, MIT/CMIT</p>	<p>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판매기간 1998~2011, PHMG</p>	<p>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기간 2002~2011, MIT/CMIT</p>	<p>롯데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 2005~2011, PHMG</p>
			
<p>홈플러스PB 가습기청정제 판매기간 2003~2011, PHMG</p>	<p>세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 2009~2011, PGH</p>	<p>이마트PB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 2006~2011, MIT/CMIT</p>	<p>코스트코 가습기클린업 판매기간 2008~2011, PHMG</p>
			
<p>GS PB 힘박웃음 가습기세정제 판매기간, MIT/CMIT</p>	<p>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 2009~2011, PGM</p>	<p>엔워드(발포정) 판매기간 2005~2011</p>	<p>다이소PB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판매기간, MIT/CMIT</p>
			
<p>아토세이프 가습기청정제 판매기간</p>	<p>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 MIT/CMIT</p>	<p>LG 119 가습기세균제거 판매기간 1997~2003, BKC</p>	<p>헨켈 홈키파 가습기한번에싹 판매기간 2007~2009, MIT/CMIT</p>

3) 옥시불매운동

어린이와 산모 100명을 죽이고도 나 몰라라 하는 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지 마세요



가습기살균제 문제 관련 자치단체의 역할

피해지원과 피해자 찾기

- 피해지원;
 - 1)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3-4단계 의료, 생계 지원
 - 2) 특히 4단계의 생존여부, 건강상태 모니터링,
 - 3) 폐업기업(세퓨) 피해자 의료/생계 지원,
 - 4) 거동못하는 중증피해자 방문 면담/위로/지원,
- 피해자 찾기
 - 1) 훈련된 피해신고 상담요원 배치,
 - 2) 자치단체 시설물, 산후조리원, 2-3차 병원 피해자 발굴,
 - 3)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 구매자에게 전달 (국회 청문회 약속 사항)

제2의 옥시를 막자

- 옥시제품 사용않기 지원,
 - 1) 자치단체 산하기관 옥시제품 사용않기 지속 추진
 - 2) 중소마트에 대한 협조요청
- 자치단체의 보건소와 병원의 환경독성센터/환경의학센터화 시범사업
 - 1) 스프레이제품 사용피해 신고접수,
 - 2) OIT필터제품 사용피해 신고접수,
 - 3) 기타 생활속 환경보건 피해신고 및 상담